

# 45~48년 기간에 있어서 이승만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양 동 안\*\*

---

I. 어렵게 이루어진 귀국	V. 미군정과의 갈등과 방미활동
II. 귀국직후 천명한 정치노선과 활동	VI. 총선관철투쟁
III. 신탁통치반대투쟁	VII 5·10총선과 정부수립
IV. 남한 단독정부수립추진	VIII 결론

---

## I. 어렵게 이루어진 귀국

### 1. 8.15직전의 곤경

일본이 연합국 측에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의 약 1년 동안 이승만은 그의 독립 운동근거지인 미국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한 연합국 측의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해방된 조국으로 곧 귀국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독립운동지도자로서 두 가지 중대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첫째, 이승만은 그의 독립운동의 지지기반이었던 재미한인사회 내의 반대파들

---

\* 이 논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년도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학

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승만은 그의 독립운동초기, 특히 그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에 추대되었던 1919년부터 20년대 초까지는 미국의 한인동포사회로부터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가 1925년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탄핵하여 그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그가 미국내의 독립운동기관으로 이용하던 워싱턴소재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를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이승만에 대한 재미한인들의 지지는 크게 축소되고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그 도전세력들은 1944년 6월에는 워싱턴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하여 이전부터 워싱턴에 존재해온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훼손했으며, 1944년 10월에는 이승만을 배제한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를 개설하려 시도했고, 1945년 4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창립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시기에는 이승만이 이끄는 임정대표단과는 별도로 재미한족연합대표단을 샌프란시스코에 파견하였다.<sup>1)</sup> 이승만에 대한 이러한 도전행위는 이승만의 민족독립운동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이승만은 그의 독립운동근거지인 미국의 정부, 특히 미국무성의 관리들로부터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무성에는 알저히스(Alger Hiss) 특별정치국장, 존 빈센트(John Vincent) 극동국장 등을 비롯하여 매우 많은 수의 친소·친중공인사 내지 공산주의자 등이 재직하고 있었다. 중국 및 극동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들 가운데도 빈센트 국장을 비롯하여 할도어 헨슨(Haldore Hanson), 존 서비스(John Service), 올리버 클럽(Oliver Clubb) 등 주요 관리들이 친공산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들이었다.<sup>2)</sup> 이들 국무성의 친소·친중공인사 내지 공산주의자 관리들이 확고한 반공·반소입장의 소지자인 이승만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미국무성의 한국문제 담당관인 조지 맥쿤(George McCune)은 사상적인 것과는 다른 이유로 이승만에 대해 비

1) 이승만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재미한인들의 이승만에 대한 도전에 관한 기술은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Reedly, California(1959), 436~444쪽과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서울 중앙일보사, (1996), 198쪽을 참조.

2)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무성에 다수의 친소·친중공인사 내지 공산주의자들이 재직하고 있었으며, 국무성의 중국 및 극동담당 주요관리들이 친소·친중공인사 내지 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은 Buckley Jr., William F. and Bozell, L. Brent, *McCarthy and His Enemies*(Chicago:Henry Regnery Co,1954), pp.7~11, pp.192~211, pp.364~382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호적이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맥쿤은 같은 평양출신인 안창호와 그의 흥사단 동지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자연히 비우호적이었다.<sup>3)</sup>

게다가 이승만은 태평양전쟁 종전 직전 미국무성의 대한반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만은 유엔창설을 위한 국제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던 1945년 5월 미국과 소련이 알타회담에서 일본의 패망 후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에 두기로 밀약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으며,<sup>4)</sup> 또한 샌프란시스코회의 기간 중 미국무성관리들이 한국인대표단원들에게 수용하도록 설득한 일본패망 후 한반도에서의 좌우합작정부(공산세력과 자유세력간의 연립정부) 구성제의를 완강히 거부했다<sup>5)</sup>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은 미국무성의 관리들로 하여금 이승만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 2. 이승만의 귀국에 대한 미국의 냉대

이승만은 1945년 8월 14일 밤(미국 시간) 그의 집에서 라디오를 통해 일본의 항복소식을 들었다. 일본의 항복소식이 보도되자 워싱턴에 살던 이승만의 측근들과 동포들이 이승만의 집으로 몰려 왔다. 이승만은 측근 및 동포들과 조국해방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향후 조국의 운명과 관련하여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다. …미국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당간에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했다.<sup>6)</sup>

이승만은 일본의 항복소식을 들은 다음 날부터 서둘러 미국무성과 접촉하여 자신의 귀국에 필요한 제반 수속을 진행했다. 미국무성은 이승만의 귀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국무성은 처음에는 미군작전지역 여행허가서가 없다는

3) 올리버, 로버트 T. 저, 박일영 역, 『李承晩秘録』 서울 한국문화출판사(1982), 32 쪽과 한표옥 『이승만과 한미외교』 서울: 중앙일보사(1996), 36쪽 참조.

4) 이원순, 『인간 이승만』 서울: 신태양사(1965), 245~247 쪽과 『독립』(좌경성향의 재미한인들이 발행한 주간신문), 1945.5.30. 참조.

5) 올리버, 앞의 책, 34 쪽과 이원순, 앞의 책, 244~245 쪽 참조.

6) 일본의 항복소식 접수 당시의 이승만의 동정은 한표옥, 앞의 책, 37~38 쪽과 이한우, 『이승만 90년』 상 서울: 조선일보사(1995), 202쪽 참조.

이유로, 두 번째는 미군작전지역 여행허가서에 기재된 '미국주재 한국고등판무관 (High Commissioner from Korea to the United States)'이라는 이승만의 직함(미육군성은 작전지역여행허가서를 작성할 때 이승만이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의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같은 직함을 기재했었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 번째는 한반도를 관장하는 태평양지역 미군사령관으로부터 서울까지 여행하는데 군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장각서를 보완하라는 이유로 이승만의 여권 발급을 거둬 연기했다.)<sup>7)</sup> 이승만의 귀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그 같은 냉대는 김일성의 귀국에 대한 소련의 특별배려나 김구의 귀국에 대한 중국 장개석 정부의 우호적 환송과 크게 대조된다.

이승만이 OSS 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던 때부터 친숙하게 지내던 프레스턴 굿펠로우(Preston Goodfellow) 대령 등 미국인 친지들의 도움으로 국무성의 비협조로 인한 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국 길에 오르게 된 것은 10월 4일이었다. 일본의 항복선언직후부터 추진된 이승만의 귀국은 약 40일간이나 지체되어 실현된 것이다. 이승만은 10월 4일 밤 단신으로 워싱턴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괌도를 경유하여 10월 12일 일본의 도쿄에 도착했다. 이승만은 다행히 도쿄에서는 맥아더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두 사람이 반공이라는 사상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때마침 도쿄에 와있던 주한미군정사령관 하지와 이승만 간의 회담을 주선해주었고 하지에게 이승만을 '돌아온 민족의 영웅'으로 환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승만은 하지와 회담한 후 도쿄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10월 16일 서울에 도착했다.<sup>8)</sup>

맥아더가 내준 미군용기를 타고 김포비행장에 내린 이승만은 단 한 명의 수행원도 거느리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으며, 그의 귀국사실이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비행장에는 환영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승만은 당시 하지장군을 비롯한 미군고위장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던 조선포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승만은 추종자들이 그의 거처로 마련한 돈암장으로 이사가게 된 10월24일까지 이 호

7) 이승만의 귀국에 관한 미국무성의 비협조적 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1960), pp.210-211; 이원순, 앞의 책, 258-259쪽; 이한우, 앞의 책, 202-203쪽 참조.

8) 『매일신보』, 1945.10.18.; 임병직, 『임병직 회고록』 서울 여원사(1964), 280 쪽 Oliver, op. cit., p.213 참조

텔에 머물렀다.

이박사의 귀국은 그가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인 10월 17일에 일반에게 알려졌다. 이승만의 귀국사실은 미군정당국이 주선한 그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졌다. 미군정사령관 하지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직접 이 박사를 구조선총독부청사 내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박사의 귀국사실을 알게 된 서울의 언론기관들은 이날 낮부터 그의 귀국사실을 긴급한 중대 뉴스로 보도했다.

이승만의 귀국소식을 듣고 좌우익을 망라한 주요 정치인들이 조선포털로 이 박사를 찾아 왔다.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등 한민당 간부들은 물론이고 여운형 허헌 이강국 최용달 등 좌익정치인들도 찾아왔다. 그들 이외에도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이 박사를 환영하기 위해 찾아왔고 일반인들도 이박사의 숙소인 조선포털로 몰려와 그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좌우익의 모든 정당 단체들은 일제히 이승만을 민족의 영웅이며 최고지도자로 묘사하면서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sup>9)</sup>

## II. 귀국직후 천명한 정치노선과 활동

### 1. 대동단결-자주독립노선

이승만은 17일 오전에 있는 기자회견과 그 날 저녁에 방송된 라디오 방송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노선의 핵심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루 빨리 뭉치고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자주독립

9) 우익진영의 정당 단체들이 이박사를 뜨겁게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박사와 사상적 노선이 다른 좌익세력이 이박사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독자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익세력이 이박사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은 당시 좌익세력의 통일전선체였던 조선인민공화국이 18일에 발표했던 다음과 성명에서 잘 확인된다. 인공의 성명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 이승만 박사는 드디어 귀국하였다. 삼천만 민중의 敬仰待望의 的이었던 만큼 전국은 환호에 넘치고 있다. 우리 해방운동에 있어서 박사의 위공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서의 추대는 조선인민의 총의이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해방조선은 독립조선으로서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충심으로 감사와 만강의 환영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신문』 1945.10.18.

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긴급한 문제는 완전독립이 아닌가. 그러자면 하루 빨리 뭉쳐야 할 줄 안다 한데 뭉치어 우리 땅을 우리 국가를 찾아 놓고 전 인민의 총선거를 단행하여 새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그 후에는 정치 경제는 물론이요, 민족반역자도 재판을 열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sup>10)</sup>라고 말하였다.

이승만은 라디오 방송연설에서도 “모든 정당과 당파가 협동하여 우리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을 찾는 것이 나의 희망하는 바입니다.…미국인들이 우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 보자는 것이니…남녀 여러분은 일심합력으로 이 기회를 잃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sup>11)</sup>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나 라디오 방송연설에서나 대동단결, 자주독립,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반복적으로 역설했으며, 이때 역설한 3개 사항이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이승만 정치노선의 요체가 되었다.

이승만은 대동단결노선에 따라 좌우익의 어떤 정치단체의 지도자로 취임하는 것도 사양했다. 그가 귀국하기 전부터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좌우정치세력은 다같이 이승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추대해놓고 있었다. 우익세력의 정당인 한민당은 그를 한민당의 영수로 추대해놓고 있었으며, 좌익세력의 통일전선체인 조선인민공화국도 그를 주석으로 추대해놓고 있었다. 이승만을 찾아온 좌우익의 정치인들은 그에게 자기들의 지도자추대를 수락해달라고 청원했으나 이승만은 인공의 주석은 물론 한민당의 영수도 수락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또한 대동단결노선에 따라 자신의 반공입장을 양보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타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10월 21일 밤 경성방송을 통해 행한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sup>12)</sup>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23일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에서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이 일부 쟁점을 놓고 참여한 의견대립을 보이자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서로 서로 악수할 점이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하고 악수하고 나갑시다”<sup>13)</sup>라고 말하여 양측의 대립을 만류하

10) 양우정 편,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서울 독립정신보급회출판부(1948), 93-96 쪽

11) 『매일신보』 1945.10.18.

12) 『매일신보』 1945.10.26.

기도 했다.

## 2.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은 귀국과 동시에 대동단결노선에 따라 한국민족의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노력을 전개했다. 이승만은 좌 우 중도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우리 민족이 자주적 역량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면 모든 정치세력이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했고, 그러한 이승만의 호소는 그의 귀국 전부터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몇 갈래의 정치세력통합운동과 상승 작용하여 정치세력들의 통합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었다.

이승만이 기자회견과 방송연설을 통해 대동단결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통합운동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어, 10월 23일 조선포털에서 각 정당 단체 대표들이 회동하게 되었다. 65개 정당과 단체의 대표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의 개회사에서 이승만은 “지금까지는 소리가 너무 많은 탓으로 세계에서 조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를 하나로 하여 세계에 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모든 상호간의 감정이나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지금의 조선사람 형편만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 덩어리로 애국정신을 뭉쳐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세계에 보여야 합니다”<sup>14)</sup>라고 말했다.

이승만이 사상의 차이와 감정의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좌우세력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의견 대립을 보였다. 좌익은 대동단결에 앞서 먼저 민족반역자(공, 친일파)를 숙청할 것과 임정봉대거부를 주장했으며, 우익은 대동단결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민족반역자를 숙청할 것과 임정봉대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정치세력통합기구의 명칭을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로 정하고 그 회장에 이승만을 추대했다.

이날 이후 이승만은 좌 우 중도의 정치세력 대표들과 독촉중협 발족 준비작업을 열성적으로 전개했다. 독촉중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박헌영과 여운형과는

13) 『매일신보』 1945.10.25.

14) 『매일신보』 1945.10.25.

각기 별도의 단독회담을 가지면서 참여를 설득했다.<sup>15)</sup>

이승만의 이러한 노력 끝에 11월 2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제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승만은 이날 개회사에서 조선의 즉각적인 독립과 38선의 폐지 및 신탁통치의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된 의사를 미·소·영·중 등 4대 연합국에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발표했다. 그 초안에는 ‘귀 열국은 조선사람이 분열되었으므로 자유국민의 자격이 없다 하나 우리 조선을 마치 양단된 몸과 같이 양단한 것은 우리가 자취한 바가 아니요 귀 열국이 강행한 것을 이에 선명치 않을 수 없다.’는 내용과 ‘재중경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 하에 환도’라는 구절이 들어있었다. 공산당대표인 박헌영은 앞의 구절은 조선을 해방시켜준 연합국에 대한 恩義를 무시하는 불운한 것이고 뒤의 구절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려면 그러한 구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친일파숙청을 먼저 한 후에 정치세력통일을 추진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만약 공산당 측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산당은 독촉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sup>16)</sup> 이러한 박헌영의 발언으로 회의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어수선했던 인민당대표 여운형이 나서서 이승만이 제의한 연합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되, 그 내용과 문구는 수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합의에 따라 메시지 수정위원으로 이승만 여운형 안재홍 이갑성 박헌영 등 5인이 선정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독촉의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7명의 전형위원을 선임할 것과 그 인선을 이승만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11월 3일 돈암장에서 연합국 측에 보낼 독촉의 메시지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위원회가 열렸다. 박헌영은 이 회의에 불참했고, 공산당은 이날 독촉은 진실한 의미의 통일전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은 박헌영과 공산당의 이러한 행동에 환멸을 느끼면서 나머지 수정위원들과 협의하여 메시지를 다소 수정하여 11월 4일 그것을 연합국에 발송했다.

이 일이 있던 후부터 이승만은 공산당에 대한 종전의 포용적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11월 7일 방송연설을 통해 “내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인민공

15) 『매일신보』 1945.11.2.

16) 『매일신보』 1945.11.3.

화국이 조직되어 있고 나를 주석으로 선정하였다 하니, 나를 이만치 생각해준 것은 감사하나 나는 그것을 정식으로나 비공식으로나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경 임시정부의 한 사람입니다”<sup>17)</sup>라고 선언하여 좌익세력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인공 측도 이승만의 그러한 선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들은 앞으로 이승만을 초당파적 인사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산당은 11월 16일 독촉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여운형의 인민당도 뒤따라 탈퇴했다.

### 3. 반공노선의 정립

좌익의 탈퇴로 지지부진해진 독촉사업에 김구와 임정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11월 23일 귀국한 김구 등 임정 제1진은 이승만의 독촉을 외면했다. 김구는 귀국 다음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촉에 관해 논평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김구의 이러한 논평은 독촉에 대한 그의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독촉의 출발점부터 임정봉대를 열심히 주장해왔고, 독촉의 집행부구성도 임정 귀국 후로 미룰 정도로 임정을 우대했는데, 임정 측은 독촉을 완전히 무시했다. 김구와 임정은 독촉에 참여해달라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요청을 임정의 좌우합작 기본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독촉을 탈퇴한 좌익과 별도로 합작공작을 전개했다. 그런 상황에서 임정 쪽으로 기울어진 국민당의 안재홍이 독촉의 간부구성과 운영이 이승만의 측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독촉을 이탈했다. 이승만이 귀국 후 추진했던 첫 정치사업인 정치세력통합운동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이승만은 독촉에서 좌익세력이 이탈하자 좌익과 더불어 정치세력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좌익과 관계를 단절하고 독촉을 우익진영의 통합운동기관으로 공고화하려고 했다. 이러한 결심에 따라 이승만은 공산당에 대한 이제까지의 포용적 태도를 대결로 전환했다. 이승만은 12월 19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행한 방송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경하게 공산당을 비난했다.

17) 『자유신문』 1945.11.8.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각국에 선언합니다. 이왕에도 재삼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공산당 극좌파들의 파괴주의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불행히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명목을 빙자하고 국경을 없이하여 나라와 동족을 팔아다가 사익과 영광을 위하여 부연위설로 인민을 속이며,…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조작하여 국민 전체에 분열상태를 타인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다가, 지금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매 간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니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해서 남의 노예로 만들고 저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 친애하는 남녀들은 어디서든지 각기 소재지에서 합동해서 무슨 명칭으로든지 애국주의를 조직하고 분열을 일삼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이 분자들과 싸우는 방법은 먼저는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시오…시종 고치지 않고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비록 친부형이나 親子姪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sup>18)</sup>

이상과 같은 이승만의 강경한 반공연설에 대해 좌익이 크게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 임정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임정은 ‘이 박사는 임정에 협력하나 임정과 독촉은 협동할 필요가 없다’거나 ‘독촉과 임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sup>19)</sup>는 등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승만-독촉과의 거리를 더욱 멀리하려고 했다. 아울러 임정은 인공 측과 합작교섭을 보다 노골적으로 전개하는가 하면, 임정 내에 특별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촉과는 별도로 좌우익을 망라한 정치세력통합작업을 추진했다. 임정이 임정의 정당성을 부정해온 좌익과의 연합을 추진하면서 임정봉대를 주장해 온 이승만을 고립시키는 이상한 형국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고립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반공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18) 『서울신문』 1945.12.21.

19) 임정국무위원 성주식과 장건상은 12월 20일의 기자회견에서 각각 그와 같은 논평을 했다. 『서울신문』 1945.12.21.

### III. 신탁통치반대투쟁

#### 1. 신탁통치에 대한 이승만의 반대입장

미국과 소련은 알타회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실시에 합의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그러한 미소의 계획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1945년 10월 하순이었다. 미국무성 극동국장 존 빈센트는 10월 20일 미국외교정책협의회에서 미국의 전후 극동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는 가운데 “조선은 다년간 일본에 예속되었던 관계로 지금 당장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신탁통치를 실시하여 그간 조선민중의 독립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할 것을 제창한다”<sup>20)</sup>라고 말했으며, 이 빈센트의 발언을 통해 한국인들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의사를 알게 된 것이다.

이승만은 빈센트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부터 신탁통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 영토는 그렇게 안될 것이다. 신탁통치는 자주독립의 실력이 없을 때에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들을수록 시급히 우리의 실력을 갖추고 우리의 자주독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21)</sup>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10월 29일에도 “우리는 이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하는 바이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제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sup>22)</sup>라고 거듭해서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승만은 이어 11월초에는 우리 민족이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촉중앙협의회의 메시지를 연합국에 보냈으며, 워싱턴에 있는 구미위원부 의장 임병직을 통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공한을 빈센트에게 보냈다.<sup>23)</sup>

이승만은 45년 12월 28일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실시계획이 담긴 모스크바협정이 발표되자 그에 대한 단호한 반대투쟁에 나서면서도 투쟁방법에 있어서는 미군정과 적대관계를 갖거나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는 방법을 취하려 했

20) 『매일신보』 1945.10.23.

21) 『자유신문』 1945.10.23.

22) 『자유신문』 1945.10.30.

23) 이로써 볼 때, 일부 반이승만성향의 연구자들이 신탁통치설이 알려진 초기에 이승만은 그에 대한 반대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에 반해 김구는 미군정과의 대결을 불사하는 방식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민중의 신탁통치 반대감정이 워낙 강한테다가 이승만이 와병 중이었기 때문에 미군정과의 대결을 불사하는 초기 반탁투쟁은 김구가 주도했다. 이승만은 1월 초순부터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승만은 김구 측이 제의한 비상정치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김구 측이 주도해서 결성한 반탁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와 독촉중협을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여 우익 진영의 반탁운동역량을 강화했다.

찬탁운동을 전개하는 좌익의 방해는 물론이고 미군정까지 우익의 반탁운동을 견제하는 조건 하에서도 이-김의 협력에 힘입어 우익진영은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저명한 민중지도자’ 8명과 임정의 의정원의원 각 분야 단체대표 등 도합 167명이 참가했다. 정식국회가 성립될 때까지 임시정부 의정원의 권한을 계승하여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 이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부 격인 최고정부회의를 설치할 것과 그 인원수 책정 및 인선을 이승만과 김구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sup>24)</sup>

## 2. 민주의원파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과 김구는 열흘 이상의 숙의를 거쳐 2월13일 각 정치세력을 안배한 28명의 최고정부위원명단을 발표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명단이 발표된 다음날 최고정부위원 전원을 미군정의 최고자문기관인 남조선 대한민국대표 민주위원회의원으로 임명했다. 미군정당국은 한편으로는 비상국민회의의 자주적 정부수립운동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반탁진영을 회유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했다. 미군정의 그런 조치는 이승만과 친숙한 인물인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활동중인 굿펠로우가 이승만-하지 사이를 거중 조정하여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자주적 정부수립을 위한 과도적 행정부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최고정부위원이 미군정청의 자문기관인 민주의원파로 전환된 것을 김구가 소극적으로 수용한데

24) 김구 측은 원래 과도정부수립 때까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임정을 확대 개편하여 수행키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승만계가 주장하여 최고정부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것이었다.

반해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승만은 2월4일에 있는 민주의원 개원식 인사말에서 “오늘이야말로 한국의 발전과 주권국가로서 독립한 자주정부 복구를 향하여 비약하는 신기원을 짓는 날이올시다. …이 의원의 성립은 한국에 대하여 지대한 의의와 이익이 있고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 통일된 독립한국의 목적달성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sup>25)</sup>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민주의원을 통해 미군정과 협조하면서 민주의원의 역할범위를 미군정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관을 뛰어 넘어 정권인수를 목표로 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 확대해 나갈으로써 자주적 정부수립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민주의원은 한국의 자주적 민주주의 과도정권 수립과 기타 긴급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관계방면과 절충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임무로 한다고 스스로 임무를 규정함으로써 그 기관의 성격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을 뛰어넘는 기관임이라는 것을 알렸고, 기구도 행정부처럼 의장과 부의장 외에 총리와 15부 4국을 설치하고 김구부 의장이 부장회의의 수반인 총리가 되었다.

이러한 민주의원의 임무규정과 기구구성은 미군정이 당초 기대했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미군정은 민주의원을 경원하게 되었다. 민주의원은 설립만 되었을 뿐 미군정은 그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 반대로 이승만은 과도입법위원의 설치로 민주의원이 존재의의가 사라진 후에도 민주의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함을 고집하고 그 의장이라는 직함을 애용했다.

한편 이승만계가 주도하는 우익통일전선체인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계가 주도하는 반탁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는 앞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2월8일 양측을 통합한 기구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했다. 1주전에 구성된 비상국민회의가 민족의 자주적 과도정부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의회에 해당하는 기구라면 이날 결성된 독촉국민회는 자주적 정부구성을 추진하는데 대중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국민운동기구였다. 따라서 표면에 내세운 독촉국민회간부들은 비정치적 인사들이었다. 독촉국민회 결성대회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총재와 부총재로 추대되었으나 취임을 유보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는 오세창과 방응모가 선출되었다.

독촉국민회는 이승만계와 김구계 김규식계로 인맥이 나누어져 있어서 효과적

25) 『조선일보』 1946.2.15.

인 조직확대를 기하지 못하다가 3월부터 이승만이 지방순회유세를 하면서부터 지방조직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독촉국민회의 강화와 주도권 장악을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은 6월 11일에 개최된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독촉국민회의 총재직 취임을 수락하면서부터 이 단체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했으며, 자기의 추종자인 오하영 신익희 방응모 정인보 등을 통해서 이 단체를 이끌어갔다.

반탁운동과정에서 구성된 민주의원과 독촉국민회는 향후 이승만의 정치노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직이 되었다.

### 3. 미소공위에 대한 협조와 반탁투쟁의 병행

남한의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반대와 찬성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신탁통치가 포함된 그 협정의 이행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추진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46년 1월 16일 예비회담을 열었고, 3월 20일 본회담을 열었다.

미소공위 본회담이 개최되자 이승만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민주의원 의장직을 잠정적으로 김규식에게 넘겨주고 지방 유세길에 올랐다. 이승만은 하지와의 타협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는 미소공위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반탁-반공-반소노선의 상징인 이승만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민주위원회의 의장으로 있으며 서울에서 소련과 미소공위를 공격하면 미소공위의 진전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 이승만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이승만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지방유세를 통해 개인적 조직 기반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이승만은 미소공위의 성과를 크게 기대 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는 미소공위에 대해 반대보다는 소극적 협조의 태도를 보였다.

미소공위가 개막되자마자 소련은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는 향후 미소공위에 의해 수립될 한반도통일임시정부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소공위는 이러한 소련 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4월 18일 통일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소공위 제5호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5호 성명대로 한다면, 모스크바협정에는 신탁통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익진영

은 반탁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임시정부구성을 위한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의원은 회의를 열고 5호 성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토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우익진영이 5호 성명에 서명하지 않으면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익진영이 공위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공위의 결론이 좌익의 주장대로 유도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황한 하지는 우익진영의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공위의 협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5호 성명에 서명해야 하며 5호 성명에 서명한 후라도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하지의 특별성명에도 불구하고 우익진영은 5호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군정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김구 측이 서명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통치는 거부하되 미군정과의 협조 하에 반탁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승만은 지방여행 중에 ‘하지를 믿고 5호 성명에 서명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민주의원에 보냈다. 그에 따라 민주의원은 5호 성명에 대한 서명을 결의했고, 민의원 산하 정당 단체들은 모두 서명했다.

우익진영이 이처럼 모두 5호 성명에 서명하자 공위의 소련대표단은 5호 성명의 의미에 대한 하지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5호 성명에 서명하고도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민의원과 관련된 모든 정당과 단체는 공위의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련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미소공위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5월 6일 무기휴회에 들어갔다.

이승만은 미소공위의 진전을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하려 했으나 남한의 우익진영을 통일정부구성에서 배제하려는 소련의 주장 때문에 그러한 협조가 무의미해졌다.

#### IV. 남한 단독정부수립추진

##### 1. 지방유세와 정읍발언

이승만은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의 조짐을 보이던 46년 4월경부터 남한지역의

단독정부수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내심으로 남한지역 단독정부수립의 불가피성을 믿고 있던 이승만은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서울의 정치지도자들과 지방유지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다음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있는 한 강연에서 남한정부수립의 필요성을 천명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를 바란다.<sup>26)</sup>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보도되자 정국은 별집을 쭈서놓은 것처럼 소란했다. 남한지역에 존재하던 주요정당 단체들 가운데 한민당과 독축을 제외한 좌우익의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미군정도 그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에 개의치 않고 호남지역유세 중 남한단정에 관한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따라서 정치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을 무릅쓰고 남한단정론을 고집스럽게 주장한 이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이승만의 권력욕(남한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권력은 정치적 고립으로부터는 창출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고립되어 가면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한 것이 권력욕 때문이라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이승만은 북한지역에 이미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민주개혁’이란 이름으로 사회주의화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만 성공 가능성이 무망한 미소공위의 타결 때까지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남한지역에 무정부적 혼란이 조성되어 남한마저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이익을 위해 장사 속으로 다루는

26) 『서울신문』 1946.6.4.

흥정처럼 한국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sup>27)</sup>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승만은 정치적 고립을 무릅쓰고 단정론을 주장한 것이다.

## 2. 민족통일총본부 결성

이승만은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남한단정 추진을 전담할 대중운동조직의 결성을 모색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독촉국민회는 김구계와 김규식계가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단정수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독촉국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단정추진운동기구를 마련하기로 작정하고 지방유세 때부터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 건설론을 확산시켰다. 이승만은 지방유세에 뒤이어 6월 11일 개최된 독촉국민회의 전국대표회의에서 그러한 기구의 설립을 기습적으로 제시, 참석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다. 이승만은 이날 회의에서 독촉국민회의 총재직취임을 수락하면서 전국대표들에게 자기가 ‘민족총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이니 그것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서 대의원들로부터 지지하겠다는 즉흥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승만은 독촉 전국대회에서의 지지를 근거로 하여 ‘민족총사령부’의 결성을 추진했고, 그 결과 6월 29일 민족통일총본부라는 명칭의 새로운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승만이 남한단정을 추진하는 조직의 명칭을 ‘민족통일총본부’로 한 것은 그가 추진하는 남한지역에서의 자율정부수립이 비판자들의 말처럼 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였다. 민족통일총본부(총재 이승만 부총재 김구)는 명분상으로는 독촉중앙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정치세력통합기관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그 간부구성을 전적으로 이승만이 주도했다.

이승만이 그의 단정노선을 실천할 조직으로 민족통일총본부를 결성하자 그러한 이승만의 의도를 간파한 김구의 한독당은 당원들의 민통참여는 개인자격으로만 허락한다고 선언, 그에 대한 참여를 억제했다. 이승만은 김구세력의 소극적 자세를 역이용하여 민통을 자신의 추종세력만으로 조직했다. 이승만은 새 단체의

27) 올리버, 앞의 책, 147~152쪽 참조. 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이 소련과 한국문제에 관해 어떤 비밀거래를 했다고 의심해왔다.

세력확장을 위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과거경력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민통에 가입시켰고, 이때부터 이승만 추종세력에는 친일경력자들이 침투하게 되었다.

## V. 미군정과의 갈등과 방미활동

### 1. 이승만과 미군정간의 갈등증폭

이승만과 하지는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 이승만의 귀국초기 하지는 이승만을 정중하게 대우했고 이승만의 추천에 따라 이승만이 재미활동시 친숙하게 지낸 굿펠로우 대령을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기용하기까지 했다. 이승만과 하지간의 이 같은 우호적 관계는 신탁통치 및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입장과 미국무성 관리들의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하지는 이승만에게 신탁통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주고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삼갈 것을 거듭 당부했으나 이승만은 그런 당부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승만과 하지간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이승만과 하지간의 우호관계가 갈등관계로 변질된 것은 46년 봄 미소공위 개막을 앞둔 시점부터이다. 하지는 미소공위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승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검열관을 동원해서 이승만이 행할 방송연설의 원고를 검열하고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미소공위가 개최되는 기간 중 이승만이 민주의원 의장을 잠정 사임하고 지방에 가있도록 유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무성은 미군정에게 이승만과 하지의 갈등관계를 더욱 촉진시키는 지시를 보냈다. 이전부터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미국무성의 한국정책 관련 관리들은 이승만이 강경한 반탁-반공-반소노선을 추구하면서 ‘미소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이라는 미국의 정책 실행을 방해하게 되자 이승만을 배제하고 미국의 정책 실행에 도움을 줄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도록 미군정에 지시했다. 미국무성의 그러한 지시는 46년 2월 말 미국무성이 하지의 상관인 맥

아더에게 보낸 메시지 속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있다.

김구 집단이나 소련의 지배를 받는 집단들과 연결되지 않는 조선을 위한 확고한 진보적 강령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 지역[필자 주. 남한지역을 의미]에서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자 집단에 대한 대항세력이 되도록 그 집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망명경력과 그들이 국민당정부에 의해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친 이승만과 국무성간의 불만족스런 거래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김구와 이승만의 집단들에 대해 어떠한 호의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진보적 지도자들의 집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김구 집단이 그러한 강령을 채택하여 실천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8)</sup>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상태에 처하면서 이승만과 미군정간의 갈등은 확대되었다. 이승만과 하지를 연결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오던 하지의 정치고문 굿펠로우가 5월 하순 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양자간의 갈등확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간매체가 사라졌다. 굿펠로우의 귀국 후 미군정은 ‘진보적 강령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물색하고 지원하라’는 미국무성의 지시를 이행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러한 미군정의 노력은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운동의 주선과 지원으로 나타났고, 그 좌우합작에 대한 미군정의 지원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이승만의 남한단정추진이 강화될수록 이승만과 미군정간의 갈등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한 갈등의 확대에 의해 미군정은 한 때 이승만을 국외로 추방할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sup>29)</sup>

## 2. 좌우합작에 대한 이승만의 지지와 반대

미군정의 좌우합작 주선은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레오나드 버취(Leonard

28) U. S.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n Relations of United States(FRUS) 1946 vol. VIII Washingt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71), pp.645~646.

29) 우남실록편찬위원회, 『우남실록』, 서울: 열화당 (1976), 166쪽.

Bertch) 중위에 의해 열심히 수행되었다. 미군정은 당시 좌우합작사업에 자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다.<sup>30)</sup>

모스크바협정이 발표된 후 남한 지역에서 미군정은 사상적으로 보아 친구가 될 세력과는 적대관계에 있고 사상적으로 적대적인 세력과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의 이러한 곤혹스런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 집행 환경을 호전시키기 위해 미국무성은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할 것과 ‘진보적 강령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을 물색하여 지원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며, 그 지시의 이행이 좌우합작의 주선과 지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국무성의 지시에 따라 이승만·김구와도 관계가 없고 공산당원도 아니면서 ‘진보적 강령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물색해오던 미군정은 김규식과 여운형이라는 ‘적절한’ 인물들을 발견했고,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에서부터 김·여 양인을 주축으로 한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주선·지원하게 되었다. 이승만과 가까운 굿펠로우가 하지의 정치고문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난 다음날인 5월 25일 버취 중위의 숙소에서 좌우합작을 위한 첫 예비회합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운동의 숨겨진 목적이 자기를 배제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좌우합작운동 초기에는 그것을 지지했다. 이승만은 김규식에게 좌우합작운동에 나서도록 권유했고,<sup>31)</sup> 좌우합작운동이 정체상태에 빠졌을 때는 “김구씨와 내가 이미 협의하고 김규식 박사가 여운형씨와 교섭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언명하였다. 김·여 양씨가 이번에 이를 성취한다면 우리 광복대업에 큰 공헌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32)</sup>라고 좌우합작을 격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좌우합작이 지지부진하고 공산당의 폭력투쟁이 격화되자 이승만은 좌우합작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승만은 공산당 주도의 9월총파업과 10월폭동에 뒤이어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 후 “좌우합작에 대하여는 합작이 민

30)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의 경비로 46년도와 47년도에 당시의 금액으로 각각 3 백 만원씩 총 6 백 만원을 국고금에서 하춘식의 이름으로 보조해주었다 송남현 『한국현대사 제 권 건국전야』, 서울: 성문각 (1980), 316 쪽

31)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서울: 신구문화사 (1974), 140 쪽.

32) 송남현, 『해방3년사』 I, 서울: 까치 (1985), 369 쪽.

족통일을 완성하여 정권수립에 필요함을 각오한 우리는 처음부터 지지하였고 또 지금도 지지한다...(그러나) 좌우합작이 되면 공산분자의 파괴공작이 정지되고 민족진영의 국권회복에 같은 보조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인데 지금 공산파는 대다수가 합작을 반대하여 전국적 파괴운동은 더욱 극렬하니 합작의 효력이 의문”<sup>33)</sup>라고 논평했다.

미군정은 46년 10월 좌우합작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후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중도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미군정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민주위원을 무시한 채 좌우합작위와 조미(朝美) 공동회담을 개최하여 남한의 당면문제들을 협의했으며, 좌우합작위와 협의하여 과도입법위원을 설립키로 한 후 과도입법위원의 민선의원선거에서 이승만의 추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자 좌우합작위의 건의에 따라 이승만 추종자들이 당선된 일부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하지는 과도입법의회 의원 중 자기가 선임키로 된 관선의원 45명을 좌우합작위가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했다.

이러한 미군정의 조치에 격분한 이승만은 좌우합작위와 하지를 비난했다. 이승만은 또 하지를 방문하여 좌우합작위 중심의 정권인수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하지가 이제껏 여러 가지 과오를 범했어도 자기는 하지를 변호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하지를 반대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에 대해 하지는 이승만의 정권장악을 용납할 의사가 없으며, 이승만이 미군정의 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으면 끝장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sup>34)</sup>

### 3. 방미활동

이승만은 하지와 회담 후 김구 및 자기의 측근들과 대책을 협의한 끝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정부와 여론에 직접 호소하여 미군정의 잘못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11월 하순 이승만의 미국방문계획이 보도되자 김구와 임정세력을 포함한 우익진영 전체가 전폭적으로 그것을 지지한 데 반해 미군정은 중도파 및 좌익진영과 더불어 그것을 격렬히 비난했다.

33) 『조선일보』, 1946.10.15.

34) Oliver, op. cit., pp.229~230.

이승만의 미국방문은 미군정의 방해로 인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민간항공여객기가 서울에 오지 않던 그 시절에 한국인 정치지도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미군정의 항공기 제공 등과 같은 협조가 있어야 했다. 이승만의 미국방문을 반대하는 미군정은 이승만에게 그러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도쿄에 있는 맥아더의 도움을 받아 미국을 방문했다.

이승만은 12월 7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승만은 당초 트루먼 대통령 및 미국 무성 고위관리들과 회담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한국문제해결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총회의장을 만나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그중 어느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다. 이승만이 미국정부의 고위층 인사들과 만나려 할 때마다 미국무성의 관리들이 개입하여 만날 수 없도록 훼방했다.<sup>35)</sup> 이승만이 방미기간 중 만난 미국정부의 관리들은 맥아더의 주선으로 만난 맥아더의 친구인 미국무성 점령지역 담당 차관보 힐드링(John Hildring) 뿐이었다.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미국까지 찾아간 이승만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 사실은 당시까지도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이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설사 장차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이승만을 남한에서 수립될 정부의 지도자로 만들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날 수 없었던 이승만은 문서와 언론매체들을 이용하여 미국정부와 정계 및 일반대중을 상대로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우선 “남북조선이 통일되고 뒤이어 남북총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조선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할 과도정부가 선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남조선지역의 과도정부는 조선문제에 관한 미 소의 직접협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점령 및 기타 중요문제들에 관해 미국 및 소련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남조선 지역에 주둔하는 미국 안보군은 미 소 양국의 점령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

35) 예를 들면, 이승만이 페터슨 전쟁(육군)성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 미국무성 관리들은 ‘이승만이 한국 정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의 하나이며’ 주한미군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페터슨으로 하여금 이승만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도록 작용했다. Matray, James,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5), p.275 에 있는 주47의 내용 참조

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sup>36)</sup>는 내용을 담은 한국문제해결에 관한 건의서를 미국 무성에 제출했다.

이러한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승만은 언론매체들을 상대로 “조선인의 독립요망은 즉시 실시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적 전쟁이 재래 될 것이다”<sup>37)</sup>, “미국무성 내 일부 분자는…공산주의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남조선 주둔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좌익에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남조선 미군정당국은 조선의 공산당건설과 이에 대한 원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소위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되어 하지 중장은 남조선입법의원 관선의원에 상당한 수를 공산주의자에게 배정 임명하였다”<sup>38)</sup>, “현재 북조선의 소련군은 50만 명의 조선인군대를 훈련하여 소련군에 편입시키고자 훈련하고 있다…한편 모스크바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의 미군은 여사한 훈련을 남조선에서 실시치 않고 있으므로 남조선은 북조선 공산주의자에 좌우될 상태에 있다”<sup>39)</sup>는 등 자극적인 내용의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주한미군정과 미국무성의 대한정책의 오류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에 하지도 주한미군정과 미국무성의 대한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에 귀국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하지의 미국에서의 활동은 당초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냈다.<sup>40)</sup>

그 결과 미국 정계 및 언론계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

36) Oliver, op. cit., p.232.

37) 『동아일보』 1946.12.11.

38) 『동아일보』 1947.1.26.

39) 『동아일보』 1947.2.26.

40) 하지는 47년 2월 하순 트루먼 대통령과 회담하고 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련이 모스크바협정을 위반하고 북한에 강력한 군대를 창설했으며 북한의 병력은 적어도 50만 명은 된다고 추정하고 이것은 남한을 북한의 손아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소련이 이같이 지나친 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도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는 또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는 미소간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이승만의 남한지역 자율정부수립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러한 발언들을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미국 조야에 확인시켜줌으로써 이승만의 남한정부수립론의 정당성을 밑받침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Truman, Harry S., *Memoirs*, vol. II *Years of Trial and Hope*, p.323; *New York Times*, 1947. 2. 25. p.1. 위의 자료는 Matray, op. cit., p.105에서 재인용한 것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동유럽과 발칸반도지역에서의 소련의 혁명수출공세로 인해 반소-반공의 여론이 높아지고 트루먼 정부도 소련과의 협력정책을 대결정책으로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서 이승만의 방미유세는 미국정계와 언론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승만의 방미기간중인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대소정책을 유화-협력추구정책으로부터 강경-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 미국무장관 마샬은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남한에 독자적인 적극적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고, AP통신은 그 ‘독자적인 적극적 계획’이란 단독정부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한정책의 이 같은 변화는 이승만의 방미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었지만 이승만은 그것을 자신의 방미활동의 성공적 결과로 간주했다. 이승만은 자기의 방미활동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면서 4월 21일 서울로 귀환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은 소련과의 대결로 선회했지만 미국의 대한정책은 아직 남한단정수립으로 선회되지는 않았으며, 미국무성이나 미군정의 이승만에 대한 배척태도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트루먼의 연설이 있는 직후 트루먼 독트린을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정 당국에 각하의 정책을 따를 것과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연합과 협력[필자 주: 좌우합작을 의미]을 초래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줄 것을 지시해주기 바랍니다. …미군점령 지역에 과도적 독립정부를 즉각 수립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진격을 저지하는 보루를 구축할 것이며 남북한의 통일을 초래할 것”<sup>41)</sup>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루먼에게 보냈다. 트루먼도 미국무성도 이승만의 서한에 대해 아무런 회답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무성은 이승만이 귀국한 후 하자에게 이승만과 김구가 모스크바협정에 입각한 한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과 마치 이승만이 미국무성 점령지역 차관보 힐드링으로부터 남한 단독정

---

41) FRUS(1947) VI, p.620.

부 수립에 관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미소공위가 끝내 소집되지 못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힐드링의 말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sup>42)</sup> 미군정은 귀국한 이승만을 사실상 가택연금상태로 몰아 넣고 그의 수행원이나 방문객들의 이승만 저택 출입을 통제했고, 이승만의 우편 물들을 검열했으며, 이승만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차단하려고 했다. 아울러 이승만의 인기를 약화시키고 장차 남한 정부의 지도자로 이승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미 한인 지도자 서재필과 강용홀을 국내로 불러들였다.<sup>43)</sup>

## VI. 총선관철투쟁

### 1. 반탁-반미소공위투쟁의 재개

46년 말부터 장기간 중단상태에 있던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좌익과 중간파는 환영했지만 우익진영은 한동안 잊혀졌던 신탁통치 명령이 되살아난 것에 분노를 표하면서 반탁투쟁을 격렬하게 재개했다.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중이기 때문에 국내의 반탁운동은 전적으로 김구에 의해 지도되었다. 김구는 반탁투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월 24일 임정세력주도 하에 반탁독립투쟁위원회(위원장 김구 부위원장 김성수, 조소앙)를 조직하였다. 김구는 또 2월 중순 우익진영 3개 통일전선단체들인 민족통일총본부, 독촉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의회(의장 조소앙)를 구성했다.

전국적으로 반탁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회는 3월 1일 임정을 남한의 정부로 봉대할 것을 결의하고 임시정부의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김구를 선출했다. 국민의회는 이러한 결의에 이어 이시영 등 임시정부대표단이 미군정장관을 방문, 임정을 승인하고 임정에 정권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42) FRUS(1947) VI, pp.647-648.

43) Insoo Rhee, *Competing Korean Elite Politics in South Korea After World War II, 1945-1948*(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81), pp.224-226.

미군정당국은 이러한 임정의 행위를 쿠데타로 간주하여 처벌하려 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서 국내의 반탁운동을 성원하면서도 미군정과 충돌하게 될 과격한 행동을 삼갈 것과 신탁통치는 저지하되 선거에 의한 남한정부수립은 미군정과 협력하여 실현할 것을 호소하며 김구의 즉각적인 정권인수기도를 만류했다.

이승만은 귀국 후 김구와 더불어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며,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위가 개최되자 반탁투쟁과 공위거부투쟁을 병행시켰다. 이승만과 김구는 공위 불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공위재개 다음날 공위에 모스크바협정에 들어 있는 신탁통치와 민주주의란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서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 때까지 공위참가를 보류한다고 천명했다. 그러한 질문은 미소 공위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소 공위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미소 양측간에 사상논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논쟁은 미소공위를 결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김구와 더불어 미소공위거부투쟁을 전개하면서 미소공위에 집착하는 하지의 정책은 ‘미국민중이나 정부에서 행하는 바와 위반된다’고 주장하자 하지는 이승만을 ‘미국의 적’이라고 비난했다.<sup>44)</sup> 미군정은 우익진영 분열공작을 전개하여 한민당과 한독당국내파를 공위참가 쪽으로 선회시켰다. 미군정은 또 한민당과 김구식을 합작시키려는 공작도 추진했다. 이러한 미군정의 공작과 한민당 및 한독당국내파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김구는 전국적으로 반탁-공위거부시위를 전개했다. 이승만이 미군정의 억압과 한민당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반탁 공위거부운동을 단호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방미기간 중 확인한 미국정부의 입장변화 및 미국여론의 반소화에 비추어 볼 때 미소공위는 필연적으로 결렬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이처럼 반탁운동-미소공위거부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러한 운동역량을 선거에 의한 남한정부수립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이승만은 시위대의 구호에 신탁반대와 더불어 총선실시를 꼭 포함시키고, 또 반탁투쟁 기간 중에 남한정부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전을 계속함으로써 ‘반탁=총선실시’라는 관념을 일반화하려 했다.

44) 『조선일보』 1947.7.4.; 林健彦 著, 최현 역, 『한국현대사』 서울: 삼민사(1986), 89쪽.

## 2. 총선추진과 민족대표대회

이승만은 방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정을 남한정부로 봉대하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선거를 실시하여 남한정부를 수립하자고 천명하면서 임정주석취임을 거부했다. 이승만은 5월 9일 “대한임정법통관계는 지금 문제삼지 말고 아직 잠복상태로 계속하였다가 정식국회와 정식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의정원과 임정의 법통을 정당히 전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sup>45)</sup> 임정봉대를 고집하는 임정계와 타협하면서 남한총선노선을 관철하려 했다. 이승만이 임정봉대를 반대하고 임정주석에 취임하지 않는 것은 새 정부에서의 주도권을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임정을 남한정부로 봉대하고 이승만이 형식적인 권한을 가진 임정주석에 취임하게 되면 장차 구성될 새 정부의 주도권은 김구와 임정인사들이 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김구와 함께 반탁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구와 별도로 남한정부수립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전개했다. 이승만은 남한정부수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민족대표자대회를 조직했다. 이승만은 그 무렵 임정계가 이탈하여 이승만의 추종단체가 된 독촉국민회의 조직을 동원하여 7월 5일부터 수일간 전국의 우익단체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200여명의 ‘민족대표’를 선출하고 그 ‘민족대표’들을 소집하여 민족대표자대회를 구성했다. 선출된 민족대표들은 대부분이 민족통일총본부의 구성원들이었다. 7월 10일 개최된 민족대표자대회는 의장에 배은희 부의장에 명제세와 박순천을 선출한 다음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목표로 국민의회와 통합할 것을 결의했다. 민족대표자대회와 국민의회간의 통합은 국민의회 측의 임정봉대 고집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족대표자대회는 국민의회와 통합이 진전되지 않자 8월 26일 독자적으로 총선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익희)를 구성하고 총선추진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제2차 미소공위는 이승만이 예측한대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결렬로 향해갔다. 미소공위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은 8월 들어 미소공위에 아무 진

45) 『동아일보』 1947.5.10.

전이 없으니 미 소 중 영 4대국외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문제를 토의하자고 소련에 제의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 소련이 미소공위도 진전시키지 않고 4대국외상회의안도 거부하자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9월 17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회부했다. 이로써 미소공위는 완전 결렬되었다.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하게 되자 이승만은 한국정계에서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민당 등 우익정치세력은 이제 이승만의 지도력에 완전히 습복하고 남한정부수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좌익은 물론이고 임정계와 중도파세력들도 남한에서의 총선에 의한 정부수립이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고 미국의 괴뢰정권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승만의 남한총선론을 반대했다. 이에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남한총선 반대자들을 설득했다.

남북이 통일해서 총선거를 하기 전에 남조선에만 총선거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언론이 있으나, 이는 사세를 떠나서 건국대업의 전도를 막는 공론일 뿐입니다. 우리 현상으로 38선 이남은 고사하고 다만 한 도나 군으로 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정치명으로 국제사회에 참가하여 언론권을 가져야 우리가 우방들의 협조를 얻어 남북통일을 축성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아니하고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남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통일시켜주기를 바라고 앉았다면 어불성설입니다.<sup>46)</sup>

### 3. 유엔총회의 한국총선결의와 총선준비

미국에 의해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되자 유엔총회는 47년 11월 14일 미국의 제안대로 남북한에서의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실시와 유엔의 선거감시, 이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가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제헌의회가 90일 이내에 미소군의 완전철수문제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아울러 그 결의의 실행을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는 이승만의 입장을 크게 강화해주었다. 당시 소련이 나타

---

46) 『조선일보』 1947.9.4.

내고 있는 태도로 보아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을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그럴 경우 부득이 남한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이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남한지역만의 선거실시를 확신하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민족대표자대회에서 구성해놓은 총선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조직을 구성하면서 조직확대사업을 전개하고, 아울러 우익진영의 단합을 추진했다. 이승만은 우익진영단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김구와의 합작이라고 판단, 그 일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김구는 당시 이승만의 남한총선론에 반대하는 연합전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승만은 김구를 남한정부수립의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김구계가 주도하는 국민의회와 이승만계가 주도하는 민족대표자대회를 통합시키는 협상을 재개시켰다. 이승만의 노력으로 11월 말 이-김 양인은 국의 민대통합과 정부수립에 관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의견일치는 12월 1일에 발표된 김구의 성명에서 확인된다. 김구는 이날 국민의회에서 “과거 남조선 총선거를 단정수립이라 하여 다르다 하였으나 우리 민족이 전체 통일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다를 점이 없으며, 이박사의 주장하는 바와 조금도 다를 점이 없으니 이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연설했다<sup>47)</sup> 김구는 또 같은 날 발표한 정부수립과 민족단결에 관한 성명에서 “불행히 소련의 방해로 인하여 북한의 선거만은 실시하지 못할지라도 추후 하시에든지 그 방해가 제거되는 대로 북한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연히 총선거의 방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남한의 단독정부와 같이 보일 것이나 좀 더 명백히 규정한다면 그것도 법리상으로나 국제관계상으로 보아 통일정부일 것이요 단독정부는 아닐 것이다.”라고 천명하여,<sup>48)</sup> 남한정부수립에 관한 이-김의 노선일치를 확인했다.

이와 같은 이-김의 단합분위기에 따라 국의는 이날 민대와의 통합을 결의했고, 곧이어 국의와 민대 양측은 ‘이승만 박사와 김구선생 양 영수의 의도를 받들어’ 국민의회선거법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비롯한 3개항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협상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공한 것으로 보이던 김구를 남한정부수립의 동반자로 삼기 위한 이

47) 『경향신문』 1947.12.2.

48) 『동아일보』 1947.12.3.

승만의 노력은 한 달이 채 못되어 좌절되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내방 시 한국인들의 통일된 의사를 위원단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민족대표단’의 명단을 12월 20일 민대가 발표하자 그 구성에 불만을 품은 김구가 다시 이승만에 등을 돌렸다. 민대는 국의 측과 사전협의 없이 민족대표단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김구는 민족대표단 명단발표가 있는 이틀 후 “우리는 여하한 경우에든지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민족대표단)은 통일에 방해가 될 뿐 49)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황한 민대는 민족대표단구성이 잘못된 것임을 국의에 사과하고 국의와 합의하에 새로운 민족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천명했으며, 이승만은 김구와 동석한 가운데 국의-민대연석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양측의 균열을 봉합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50)

## VII. 5·10총선과 정부수립

### 1. 5·10총선

이승만이 주장해온 남한지역에서의 정부수립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방문하면서부터 가시화되었다. 유엔위원단은 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했다 유엔 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북한의 김일성은 유엔위원단의 북한방문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 스티코프는 유엔위원단의 북한지역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했으며, 소련의 유엔대표는 유엔위원단의 북한방문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엔위원단은 그 달 26일부터 남한지역의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한국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면담을 실시했다.

유엔위원단은 그러한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

49) 『경향신문』 1947.12.25.

50) 이러한 사건진행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김구가 이승만의 정부수립노선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은 민족대표단 구성문제 때문이 아니고 보다 결정적인 다른 원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小總會에 제출했고, 유엔 소총회는 2월 26일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에 호응하여 미군정사령관 하지는 약 2개월 후인 5월 9일에 남한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후에 5월 9일 계기일식이 발생하는 날로 밝혀져 선거일은 5월 10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유엔 소총회의 결의와 하지의 발표로 이승만이 주장해온 남한에서의 총선에 의한 정부수립을 가로막는 장애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승만과 그의 직계 추종세력 및 이승만의 정부수립노력에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한민당에게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총선을 보다 많은 정치세력과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같은 우익진영인 김구를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구는 남한총선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김규식의 중도파세력 및 좌익세력과 연대하여 남북지도자회담 곧 남북협상을 추진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승만은 김구와 김규식에게 자기가 남북협상에 동참할 것인즉 양김씨도 남한총선에 찬성해달라고 설득하여, 양김씨는 한 때 그에 동의하기도 했었다.<sup>51)</sup> 그러나 양김씨는 결국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남한선거에 불참했다.

김구와 김규식을 총선에 참여시키는데 실패한 이승만과 한민당은 이제 남한의 일반대중을 선거에 많이 참여시키고 선거를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남한총선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한총선의 취지를 다음과 설명했다.

- 1) 단독의 정부라는 말은 당초에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거의 일년 반전에 미주에서 돌아와서 문자와 언론으로 성명한 것은 과도 정부로 남북을 대표한 정부를 수립하기로 한 것인데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독정부라는 언론을 만들어내서 인심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이들은 총선거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았다가 공산화하고 말자는 것이다...
- 2) 총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종 요언을 倣作해서 정부를 세우면 미국 통치를 받게 된다, 혹은 군정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하는 등의 선동이 있

51) 올리버, 앞의 책, 180~181쪽 참조

으나 이것은 다 사실도 아니요, 사리에도 부당한 것이다. 우리가 국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헌법을 정하여 헌법대로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요 그 정부는 완전무결한 독립정부이므로 정권을 간섭할 나라도 없고 간섭하리라고 간섭받을 한인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완전한 독립국권 회복이다...

- 3) 남조선에서 정부수립이 되면 남북분열을 영구히 인정하는 것으로 남북이 병행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를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사리에 당치도 않는 말이다. 사람의 몸에 한 편이 죽어 가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는 편을 살리기를 피할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sup>52)</sup>

남한총선에 대한 이와 같은 이승만의 설명은 당시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이었으며, 당시 남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그러한 설명을 수용했다. 그런 까닭에 2월초부터 5·10선거일까지 전개된 좌익세력의 격렬한 선거방해 폭력투쟁을 전개하고, 김구 김규식이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속에 남북협상을 추진하는 등 선거방해 선전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선거인등록율 86%에 투표참가율 98%)의 국민이 선거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자기들 추종하는 국민운동조직인 독촉국민회의 민족대표자대회 및 각종 청년학생단체와 한민당을 연합시켜서 총선거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추종세력들이 선거에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남북한전체의 국회의원총수 300명중 남한지역정원 200명(당시 남한인구가 북한인구의 약 2배에 달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의해 남북한의 국회의원정원을 그 같이 정했다)을 선출하는 5·10선거에서는 4·3 폭동의 여파로 선거가 불가능했던 제주도의 2개선거구를 제외한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서울의 동대문 갑구에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5·10선거에서는 이승만의 직계 추종조직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대동청년단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며, 한민당 소속 및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승만추종자들도 많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52) 『동아일보』 1948.3.2.

직계 추종자들은 당파적 유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이승만 직계 추종세력이 원내 지배세력이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한민당이 소속후보를 29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많은 무소속 당선자들과 동류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내에서 가장 영향력 강한 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2.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5·10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5월 31일 개원식을 가졌고 이 개원식에서 이승만은 재적의원 198명중 188표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승만은 인사말을 통해 “이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sup>53)</sup>이라고 말하여, 새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강조했다. 이승만의 이 발언은 그가 건국운동과정에서 임정을 정부로 선포하는 김구 측의 주장을 만류하면서 약속했던 총선을 통해 정부를 수립한 다음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게 하자고 한 사향을 이행한 것인 동시에 남한총선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이승만은 이 연설에서 또 공산당에 대해 “국권회복에 합심 전력하여 민족진영으로 同舟併濟하는 결심을 표명하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과회심할 기회를 준다”라고 말했다.<sup>54)</sup>

국회는 개원식에 이어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의 정부형태 조항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한민당이 대립했다. 한민당은 원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집단인 자기들의 정계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관철시키려 한 데 반해, 대통령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승만은 자기의 권한강화를 위해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를 관철하려 했다. 정부형태를 둘러싼 이승만과 한민당의

53) 『동아일보』 1948.6.1.

54) 이러한 발언은 그가 비록 공산당과 싸우면서 건국을 이룩했지만 공산당에 대해 관용할 수 있는 태도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승만이 확고한 반공주의자이면서도 비폭력적 사회주의의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면서 한번도 그를 추종해본 적이 없는 사회주의자 조봉암을 농림장관에 임명한데서도 확인된다.

줄다리기는 결국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다.

한민당이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는 헌법초안을 기초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상정하려 하자, 이승만은 국회의장 자격으로 그것을 저지한 다음 의원내각제 헌법이 채택된다면 자기는 그러한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한민당을 협박했다. 이승만의 이러한 협박에 한민당은 굴복했다. 친일파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한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독립운동지도자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옹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민당은 또 정부형태에 대한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하면 이승만이 장차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당수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기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민당인사들을 다수 내각에 기용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당은 대통령중심제에 우선을 두면서도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상당히 가미한 절충형의 정부형태를 가진 헌법초안을 만들어 이승만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렇게 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하고 국호는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으로 하는 헌법이 7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선포되었다.

헌법이 공포된 지 3일 후인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이승만은 180표의 압도적 다수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승만과 이시영의 정·부통령취임식은 7월 24일 거행되었다.

대통령취임식에 이어 내각조직에 들어간 이승만은 건국운동세력의 단합보다는 자신의 대통령 권한행사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각을 구성하려 했다. 그러한 구상에 따라 국무총리직에 김성수<sup>55)</sup>나 조소앙 같은 정계의 실력자를 지명하지 않고 정치지도자로 볼 수 없는 목사 이윤영을 지명했다. 이승만의 이러한 국무총리지명은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큰 반발까지 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또다시 정계의 실력자를 피하고 이범석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 이범석의 국무총리지명은 한민당 측의 양보로 국회의 인준을 얻게 되었다.

55) 원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인 한민당의 당수 김성수는 자기가 건국 후 초대 내각수반에 선임될 것을 예상하며 5·10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고 자기의 선거구를 이복에서 넘어온 이윤영에게 양보해주고 그의 당선을 지원했었다.

국무총리인준이 이루어지자 이승만은 정계의 예상은 물론이고 측근자들의 예상에도 맞지 않는 이외의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부통령인 이시영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고 또한 원내 최대정파인 한민당의 핵심적 인사들은 배제했으며,<sup>56)</sup> 초당파적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헌법제정 때 이승만에 양보하고 내각구성에서 크게 소외된 한민당은 이승만의 이러한 조치에 배신감을 느끼고 마침내 이승만에 대해 야당적 입장을 취했다. 독선적이고 지나치게 정략적이었던 이승만의 내각구성은 건국과정에서 가장 충성스런 협력자였던 한민당을 야당이 되게 함으로써 건국초기에 긴요한 정치안정을 이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승만은 이처럼 정계의 지지가 약한 내각을 이끌고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이양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방기념일인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정부 수립 선포식을 거행했다.

## VIII. 결론

45년부터 48년까지 기간 중 이승만의 정치활동을 이상과 같이 정리해보면, 기왕 이루어진 이승만의 정치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발견된다.

(1) 이승만은 미국정부 특히 미국무성과 그다지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운동도 미국무성 및 주한미군정당국의 협조 하에 전개된 것이 아니다. 이승만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연구들은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이며 이승만이 전개한 대한민국 건국운동은 남한지역을 미국의 식민지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승만은 적어도 2차대전 말기부터 48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미국무성으로부터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아 왔고,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운동은 마지막 단계에서

56) 이시영은 이승만이 내각구성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이승만 행정부의 첫 각의에 불참했고, 이승만행정부의 첫 내각에 한민당 소속인사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한민당의 핵심실세들이 아니었다.

만 미국의 협조 지원을 얻었을 뿐 그 이전까지는 미국정부 및 주한미군정부로부터 방해받았다. 미국무성은 남한정부수립정책이 확정된 후에도 이승만이 아닌 다른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을 고려했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승만을 실각시키려 했었다.<sup>57)</sup> 만일 미국이 소련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지원했던 것과 같이 이승만을 시종일관하게 지원했다면 대한민국은 김구와 김규식 세력의 동참 하에 훨씬 공고한 국가로 출발했을 것이다.

(2) 이승만은 그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반공입장을 취하거나 좌우합작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확고한 반공입장을 취했던 것이 틀림없고 귀국한 후에도 매우 단호한 반공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반공은 공산주의자들의 비민족적 노선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민족분단을 각오한 반공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민족통합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귀국초기 정치세력통합운동을 전개할 때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었다. 좌우합작운동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그것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또 초기에는 김규식에게 좌우합작운동에 나서도록 권유했고, 좌우합작이 침체되었을 때는 그 진전을 격려했기도 했다. 그가 좌우합작에 반대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과는 거리가 먼 반이승만-김구 세력의 형성으로 성격이 전환되면서부터였다. 이승만이 건국 후 첫 번째 내각에 자기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는 사회주의자 조봉암을 참여시킨 것도 그가 6·25전쟁 전까지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반공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이승만은 시종일관 신탁통치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취해왔고 반탁운동과 미소공위 거부투쟁에 있어서 항상 김구와 함께 앞장섰다. 다만 미군정과 물리적으로 맞서려 하거나 미군정부로부터 당장 정권을 접수하려는 김구와는 달리 미군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주적 정권을 수립하더라도 미군정의 협조를 얻어

57)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후에도 1950년대초 미국무성에 대규모 인사숙청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무성으로부터 우호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미국무성은 50년 이승만을 쿠데타로 제거할 것을 고려했었다.

서 해야 한다는 보다 덜 과격한 입장을 취했을 뿐이다. 일부 이승만 비판 연구자들이 이승만이 내심으로는 신탁통치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사실에 대한 치밀한 추적을 결여한 주장이다.

(4) 이승만이 오로지 권력욕에서 민족분단을 초래할 남한단정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도 민족분단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남한단독정권수립도 분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지역에 사회주의 지향적인 단독정권이 수립된 상황<sup>58)</sup>에서 남한지역에서만 민족의 자주적 정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주의적 대안으로써 추구되었던 것이다. 나아가서는 장차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남한에서 민족의 자주적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김구가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접수했을 경우 그것 역시 남한의 단독정권이 될 것이라는 점이나, 46년 2월에 북한지역에서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권이 북한단독정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언급을 하지 않고 이승만이 남한에서 수립한 정권만 분단을 영구화하는 단독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들을 수용하게 되면, 같은 남한땅 위에서라도 김구가 정권을 수립하면 단독정권이 아니고 이승만이 정권을 수립하면 단독정권이라는 견해가 성립되고, 북한지역에서 단독적으로 수립된 사회주의지향정권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단독정권이 아니고 남한지역에서 수립된 자유민주주의지향정권만 분단을 영구화하는 단독정권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

(5) 이승만은 남북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일변도적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심지어 김구와 김규식에게 그들이 남한총선을 지지하면 자기도 남북협상에 동참하겠다고 설득하기도 했었다. 이승만은 또한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그것이 아무런 긍정적 결과를 생산하지 못할 부질없는 짓이고 남한총선실시에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그에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독자성을 결여하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소련은 북한을 사회주의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추진하

58) 북한지역에서는 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회주의지향정권이 수립되었고 그 해 3월부터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화 준비작업이 추진되었다.

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인들이 민족주의적 감상에 입각하여 북한 지도자들과 회담해 봐야 민족의 올바른 통일(이승만은 사회주의화 통일은 올바른 통일로 보지 않았다)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아무것도 유도해 낼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이 이승만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남한단독정권의 수립에만 열중하여 남북협상의 정신 그 자체조차 거부했던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당시 이승만의 실제행동과는 다른 잘못된 주장이다.

(6) 이승만의 추종세력은 친일파 일색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일파는 소수였다. 이승만의 추종세력들은 어떤 이념이나 경력의 동질성 때문에 이승만을 추종했다기보다는 이승만의 명망과 그를 추종하는데서 결과될 미래의 보상에 매력을 느껴 추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신조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뿐이었다. 때문에 이승만의 추종자들 가운데는 친일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특히 이승만이 순전히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만으로 민족통일총본부를 결성하는 과정이나, 임정계가 독촉국민회를 탈퇴한 후 독촉국민회의 조직을 보강하는 과정이나, 민족대표자대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친일경력자들이 상당수 침투했다. 그러나 일제 하에서 동포를 탄압 착취하는데 노골적으로 앞장섰던 ‘악질적 친일분자’는 없었다. 이승만의 반일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승만 추종조직의 중앙 부서에는 그러한 노골적 친일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은 이승만의 직계 추종자들이 다양한 단체나 대중운동에서 반일 의식이 강한 김구의 추종자들과 함께 협력하였고 한민당과의 조직적 혼합을 기피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쉽게 입증된다. 이승만의 추종세력을 친일파도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어도 45년-48년 기간중의 이승만 추종세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충원된 관료나 정치인들 중에는 친일경력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지만 정부수립 전의 추종자들 가운데는 친일경력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7) 이승만은 해방정국에서 일관된 정치노선을 견지했던 남한 내 유일한 정치 지도자였다. 이승만은 귀국직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조직 때부터 대동단결·자주독립·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이라는 3대 건국원칙을 천명했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물론 박헌영과 여운형 등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발언에 번복이 많았으며 정치노선에 동요가 있었다. 그러한 격동의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은 정치세력 및 미군정과 격심한 마찰을 겪고 때로는 정치적 고립에 처하면서도 그러한 3대 원칙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끝내는 그 원칙을 관철했다. 이승만의 미래예측력이 탁월했고, 그의 정치노선이 현실적이었으며, 그가 기회주의적 정치인이기보다는 신념의 정치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8) 이승만은 해방직후의 정치경쟁에서 매우 권모술수적이었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다. 이승만이 자신의 방미활동성과를 과대 선전했고, 맥아더와의 우호관계를 과장했으며, 우익진영 통일전선기관에서 김구세력을 거세했고, 첫 번째 조각에서 한민당을 소외시킨 것 등은 그의 마키아벨리스트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오랜 해외독립운동 끝에 단신으로 귀국한 그가 당시의 정치경쟁에서 승리하자면 마키아벨리즘의 동원이 필요했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정치사회에서 잘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의 그러한 측면이 정치사회로부터 그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고 훗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7 서울 탐구당 1968~1970.
- 김도현, 「이승만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301~326 쪽
- 김원용, 『재미한인 50년사』 Reedly, California, 1959.
-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사회과학출판사, 1983.
- 김희일, 『예속과 몰락의 30년. 미제식민통치하의 남조선이 걸어온 길』, 조국통일사, 1976.
- 박갑동, 『통곡의 언덕에서』, 서당, 1991.
- 서정주, 『이승만박사 전기』, 38 사, 1949.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일조각, 1979.
- 송건호, 「민족통일국가 수립의 실패와 분단시대의 개막」,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40년의 재인식』 II, 돌베개, 1985, 139~173쪽.

- 송남현, 『한국현대사: 제1권 건국전야』, 성문각, 1980.
- 송남현, 『해방3년사』 I, II, 까치사, 1985.
- 양동안,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비교」, 구범모 외, 『정치적 정통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23~213쪽.
- 양동안 외, 『현대한국정치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양우정,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독립정신보급회출판부, 1948.
- 올리버, 로버트 저, 박일영 역, 『이승만비록』, 한국문화출판사, 1982.
- 우남실록편찬위원회, 『우남실록』, 열화당, 1976.
-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 윤치영, 『윤치영의 20세기』, 삼성출판사 1991.
- 이길상 편, 『미군정활동보고서』 Summation of U. 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vol. 1~5, 원주문화사, 1991.
- 이원순, 『인간 이승만』, 신태양사, 1965.
- 이인수, 「이승만」, 한국사학회 편, 『한국현대 인물론』제1권, 을유문화사, 1987, 1~88쪽.
-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친구문화사, 1974.
- 이한우, 『이승만 90년』, 조선일보사 1995.
- 임병직, 『임병직 회고록』, 여원사, 1964.
- 정용욱·이길상 편,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자료집』1~13, 다락방 1995.
- 조병욱, 『나의 회고록』, 민교사, 1959/ 해동, 1986.
-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3.
-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지식산업사, 1991.
- 하야시 다케히코林建彦 저, 최현 역, 『한국현대사』, 삼민사, 1986.
- 한표욱, 『이승만과 한미외교』, 중앙일보사, 1996.
- 경향신문, 독립, 동아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등의 1945년~1948년의 기사
- Buckley Jr., William and Bozell, Brent, *McCarthy And His Enemies* Chicago: Henry Regnery Co., 1954.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81.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68.
- Matray, James,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5.

Oliver, Robert,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60.

Rhee, Insoo, *Competing Korean Elite Politics In South Korea After World War II 1945~1948*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81

U. S. Army, *History Of United State Armed Forces In Korea* 1~4(복사판), 돌베개, 1988.

U. S.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 VI, 1946 vol. VIII, 1947 vol. VI, 1948 vol. VI Washingt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1971, 1972, 1974.

주요어

이승만, 신탁통치, 5·10총선